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904호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6년 2월 5일 금요일 (음 12월 27일) 제14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 288-9700

설 연휴 총선 '밤상머리 여론' 형성

예비후보 민심 향배 촉각

더민주-국민의당 구도 야권 재편 마무리
판세 출렁거릴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구도로 야권 지역 재편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밤상머리' 여론이라 일컬어지는 이번 설 민심에 선거 판세가 출렁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3면)

또한, 그동안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일부 출마예정자들도 결정을 내리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차츰 진용을 갖춰가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입지를 다지고 설 연휴기간 지역 민심에 존재감을 각인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거구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합 예정 지역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신인들의 다급함은 그만큼 설 연휴 민심잡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연유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저마다 '민심 속으로'를 외치며 지역구 곳곳을 누비는 등 바다 표심을 훑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전락다.

4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현황을 보면 전북은 11개 선거구에 63명이 등록해 5.7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남원순창 경쟁률이 10:1로 가장 높고 정

읍과 진안무주정수입설이 각각 2:1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정치 신인 등 일부후보자들은 설 밤상에 오를 이슈로 현 정부의 심판론과 야권분열, 인적쇄신, 일자리 문제 등을 꼽고 이에 대한 자신의 정치철학이나 소신을 지역민에게 전파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설 연휴기간 동안 자신의 경쟁력 확보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도 일정부분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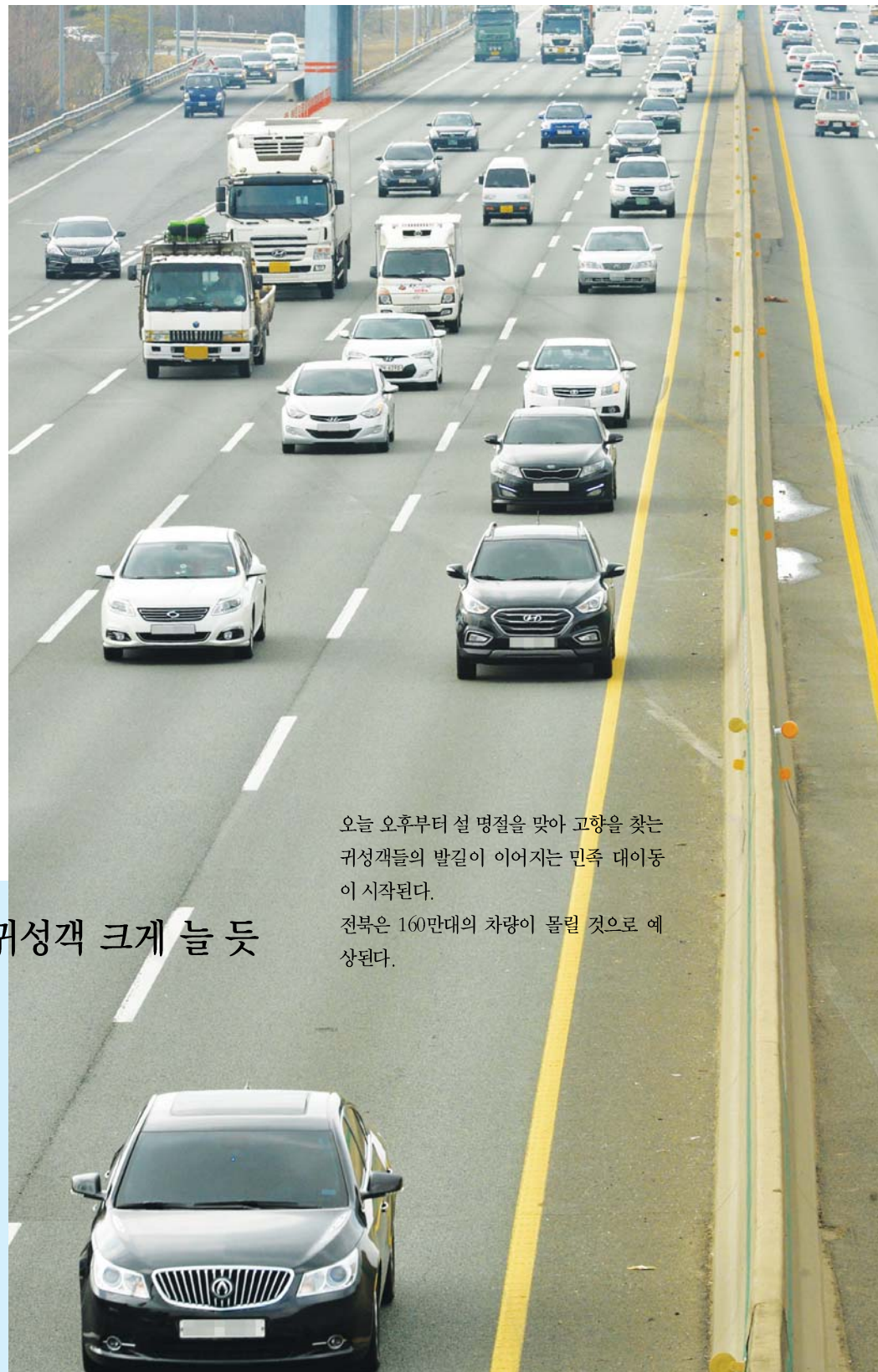
또한 예비후보자들은 현역 의원의 무능력을 집중 부각시켜 향후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역은 현역대로 설 명절을 전후해 본격적인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 놓지 못하면 뒷발의 사수가 어렵다고 보고 지역민과의 접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야적 선거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설 연휴기간 인지도를 높이며 지역민심을 잡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출마선언이 이어질 것"이라며 "현역입장에선 더민주와 국민의당 선거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은 더민주의 지역조직을 적극 활용할 기회가 바로 이번 설 명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민형 기자



오늘 오후부터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다. 전북은 160만대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부터 민족 대이동... 5일간 황금연휴로 귀성객 크게 늘 듯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설 명절을 위한 본격적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설 연휴는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5일이며 연월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9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로 지낼 수 있게 돼 귀성객의 발길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160만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예상소요시간은 서울에서 전주까지 3시간20분, 전주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4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귀성은 연휴가 시작되는 5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와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귀경은 설날 다음날인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새벽 2시,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머리를 잘근 동여댔다.

먼저, 익산정수선 익산분기점 천안방향 진출램프 감속차로를 연장(360m→4,360m)해 진출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본선 정체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안선 동서천분기점~군산 구간에 승용차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 본선 통행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화질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방지를 위해 임시화장실과 흡음쉼터를 운영해 흡음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가진 것은 학교가 되게
해복한 교육

자유롭게!

다같이~

재밌다~

내 힘으로!

학교자치기

교육주체가 함께 합니다
학교가 더 건강해집니다

전라북도교육청